아시아공동체론-아시아 공동체에 관하여 주요국들의 방향을 생각해보다

행정학과 201523619 구자건
출석번호-66번

아시아공동체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아시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강의 첫 시간에서 주요하게 다룬 문제 또한 이것이었다. 아시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시아의 개념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까? 아시아라는 개념은 하나의 의미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국가·시대 별로 다르게 정의 되어 온 개념이다. 우리가 현 시대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각 나라 간의 경계가 이전에 비해 희미해지고 있으며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국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경제·정치·외교·문화적으로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묶여져 가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주변의 국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우선 역사적으로 아시아라는 단어의 어원과 한국의 주변국들과의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평소에 국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의 역사적인 관계·사실들을 정립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아시아 통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물론 특정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그 일대에서 국력이 강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7년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국, 일본, 한국 간의 마찰이 전례 없이 심한 시기였다. 이 국가들의 관점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저들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 역사적으로 중국이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와 사상은 어떠했는지, 일본과의 역사 분쟁 속에서 해방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대립 상태에 이르렀으며 일본의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을 아는 것은 현재의 대립을 완화하고 장차 저들과 상호존중하며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을 지배해 온 사상은 중화사상이다. 비록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중원 점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주변의 민족들을 오랑캐로 인식하는 이 사상은 현재의 중국인들의 사상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라는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유럽·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쏟고 있다. 주변국들을 대상으로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체급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인접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으며 경제적인 압력이나 무력을 동반한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은 아시아 통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생보다는 자국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아시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또 다른 강대국인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산업화를 거치고 20세기에 새로운 열강으로 거듭난 이래로 일본이 아시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지역·문명권의 의미로 '아시아'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유럽의 아시아 무시 경향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는 '탈아론'과 '흥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흥아론'의 뒤틀린 형태인 '대동아공영권'이 실패한 이후에도 이 두 모순된 사상은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 오던 중화사상을 깨기 위해 중국이라는 표현을 부정하고 지나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

며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아시아 역외권의 해양 세력인 미국을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 개념, 현재에는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개념을 적극적으로 퍼트리며 자신의 기준으로 아시아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두 강국이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해 오고 있는 21세기에도 아시아는 유럽연합 수준의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ASEAN을 창설하여 아시아공동체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新북방정책을 내세우며 외교 관계의 틀을 잡으려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 확실한 정의가 없으며 지역에 대한 개념의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기에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며 협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타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국력이 중국, 일본에 비해 약하기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국력 문제보다는 한국 내에서 아시아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이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의 소국인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내에서 정치제도 정립에 큰 역할을 한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하여 한국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르는 아시아 통합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길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주로 역사·정치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생각했는데 이 수업은 그럼 딱딱한 틀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생각할거리를 준다. 또한 민족과 국경의 구분이 인위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틀에 박힌 인식에서 졸업할 필요가 있다는 영감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들로부터 고립주의가 확산되고 다문화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수업이다. 이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들이 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타 국의 문화와 가치를 포용하고, 한국이 타국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는 데에 의견을 제시하고 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